

# 전북 자존심 지키는 '투지' 불태워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올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투지를 불태웠던 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의 중앙부처 예산안의 78%나 삭감됨에 따라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을 발족했다. 의원들은 곡기를 끊고, 삭발을 감행하며 예산의 원상회복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차오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280Km를 달리는 등 전북도민의 간절함을 알렸다. 이 같은 도의회의 의침은 큰 울림으로 출항인 등 전북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끄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의회의 자치 기능 수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정비로 추동력을 갖췄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국립의전원 유치,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전방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전북 현안 해결에 구슬땀을 흘렸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전북도의회는 올 한 해 활동과 성과를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해 본다.



도의회 의원들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의 새만금 예산삭감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다.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 장영국, 강태창·김정기·박정희·서난이·오현숙·윤정훈·이명연·임승식·최형열 의원)는 12대 도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집중했다.

특히 도민을 중심에 둔 정책으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역량을 쏟았다.

위원회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치 기능 수요를 분석한 '제12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부서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전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제정했다.

그간 협약으로 추진됐던 인사청문회의 경우 대상 기관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고, 필요 제한 사항을 담은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탄소중립, 전북특별자치도지원,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지원,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심의해 도의회가 전방 현안 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했다.

### 전북지역 현안 대응·해결 적극 나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 다각적 의정 펼쳐 도내 산업경제·농촌 현장 고충 해결 지역균형발전 실현 위해 역량 집중 지역 간 차별없는 교육문화 조성 노력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분 발언에서는 익산 장접마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교육공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형 농촌현장활동가 육성,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전북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긍심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전북의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 임승식, 강동화·김만기·박용근·윤정훈·황영석 의원)는 유보통합의 추진을 위한 전북도와 교육청 간 협력과 사전 준비를 주문하는 동시에, 유보통합 정책추진 인력 배정과 국고 지원에 대한 건의안 채택 등 영유아 교육의 지속한 정상화를 도모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집중했다. '전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에게 기회 소득 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전북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출생을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연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거와 결혼이민자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도민의 물 복지증진을 위한 '전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를 공급 체계도 구축했다.

###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 최형열, 권요안·김대중·김동구·김희수·서난이·오은미 의원)는 전북의 산업경제와 농촌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가 구성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위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과 산자부 방문, 캠페인, '전북도 이차전지 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펼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넸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고품화와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 쌀값 하락, 영농 자재 가격 폭등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나아가 '전북도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전북도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전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고품화와 인건비 상승, 일손 부족, 쌀값 하락, 영농 자재 가격 폭등 등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즉각 처리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나아가 '전북도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전북도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김경기, 문승우·이명연·이수진·윤수봉·윤영숙 의원)는 전세 사기로 피해받고 있는 청년, 취약계층 등의 현안을 면밀하게 살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대형부 촉구 건의·결의안 채택과 5분 발언 등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또한 '전라북도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처럼 주회·주관이 없는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행사에 대해 도지사가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교문화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존 근거도 마련했다.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그동안 문화재 범위에 속하지 못해 관리·보존이 어려웠던 종교문화 유산을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 관리·보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북도체육회의 문제점들과 전북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체육회의 공정성과 자정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하기도 했다.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 부위원장 박정희, 김솔지·이정린·장연국·전용태·진형석·한정수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 간 차별 없는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먼저, 추락한 교편을 바로 세우는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다. 학생 인권란 강화했던 측면에 더해 교직원들의 인권 강화를 추가하면서 교편 보호를 위한 첫 조례를 탄생시켰다.

또 인구감소 지역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농어촌 학생 통학권 등 관리보장을 교육청에 주문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발전을 꾀했다.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시대에 맞춰 단계적·체계적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분 발언을 통해 밀려오는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에듀테크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나아가 교육청의 미래교육연구원을 찾아가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교육기록물이 보관된 전북교육박물관 수장고의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훈 기자

### ▶ 국주영은 의장의 소회



## 신뢰받는 의회 실현 한발 더 다가섰다

"전북도의회 의회 의침은 전북인의 꿈과 희망을 쫓아주는 커다란 울림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의장은 "초유의 새만금 SOC 중앙부처 예산안의 78% 삭감은 소외감과 처해 있던 전북도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줬다"면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투지를 불태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 모두가 역동적이고, 살신성인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강조했다.

국주 의장은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의원들은 단식과 눈물의 삭발을 감행했다"며 "차오른 물집이 터지고 피가 나는 발바닥의 고통을 이겨내며 국회 여의도가 지 달리고 또 달리며 도민의 간절함을 널리 알렸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원들의 피눈물 섞인 의침은 출항인을 비롯한 전북인의 공감과 행동을 이끄는 울림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주 의장은 또 "집행부를 면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의회의 자치 기능 수요를 고려해 더욱 전문성을 갖춘 사무처 조직으로 정비했다"고 설명한 뒤 "도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 국립의전원 유치, 탄소중립,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치, 전방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면서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유보통합의 통한 영유아 교육의 조기 정상화, 전북의 산업경제와 농촌 현장 해결,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교육문화 조성 등도 의정활동의 주요성과"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주 의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지방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는 더 특별하게 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하도록 전북도의회 의정 역량을 더더욱 역동적으로 쏟아부으겠다"고 강조했다.

### ▶ 사진으로 보는 상임위원별 의정활동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정 전반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원주용진119안전센터 예정부지를 둘러본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군산의료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전북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익산 수해 피해지역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진안교육지원청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